

새터민 10명 중 6명 '실업자'

(북한 탈주민)

광주·전남·북, 제주 170명 설문 직장 있어도 평균 100만원 미만

탈북 후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북한 탈주민)' 10명 중 6명이 직장이 없는 실업상태이며, 직장이 있어도 평균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소장 이정강)가 최근 광주와 전남·전북·제주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 487명 중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새터민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에 못 미치는 9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35.2%가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100만원이라고 답했고, 100만~150만원은 34.3%였다. 50만원 이하도 14.3%나 됐으며, 150만원 이상은 9%에 불과했다.

가족 소득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51.4%)이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44.1%에 그쳤다.

반면, 전체 응답자 171명 중 21명(12.0%)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701만원이었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현재 가정 소득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직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응답자

들의 60.5%가 현재 직업을 없다고 응답했으며, 직업을 잇더라도 생산·기능·노무직과 같은 단순 기술직이 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서비스직 30.1% ▲사무직 17.5% ▲시간제 취업 12.7% ▲경영직 4.8% ▲자영업 3.2% 순이었다.



남북정상회담 간담회

직장 만족도에 관해서는 30.1%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반면, ▲불만족스럽다(47.6%) ▲불만족스럽다(22.3%)고 답한 사람이 많아 대체로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터민들에 대한 지역민의 차별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9.1%가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20.5%만이 차별을 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별 경험은 직장 상사(26.2%),

직장 동료(21%)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구청과 동사무소 공무원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23.5%나 됐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새터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 프로그램 강화 ▲새터민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사회적 노력 ▲새터민들의 노력 ▲새터민의 노동권 보장 ▲교육적 기회와 체력 체력적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공항 국제선 옮기지 말라"

여행업계·시민단체 등 "국내선도 폐지 불가"

광주 관공협회 등 1천여명 광기대회 ... 반발

오는 11월 8일로 예정된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건교부가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폐쇄와 국내선 기능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 존치와 국내선 폐지 절대 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건교위 김선미(참주연인합) 의원은 17일 "올해 개항하는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유치를 위해 광주공항이 폐쇄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교부가 무안공항 개항 시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 및 목표 공항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마저 내년엔 완공되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의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해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기능을 내년엔 모두 무안공항에 옮겨 옮겨 운송비행장으로 사용될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 존치와 국내선 폐지 절대 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교부는 무안공항을 국제선, 광주공항을 국내선으로 이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주공항은 전국에 있는 공항 16곳 가운데 수익을 내는 4곳 중 하나"라며 "건교부에 광주공항 조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 관공협회를 비롯한 지역 여행업계와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제인총연합회 등 각계 단체 회원 1천여명은 18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열

주체육관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반대 시민 광기대회'를 갖는 등 건교부의 방침에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건교부가 다음달 개항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첨예화됐다.

광주지역 각계 단체들은 지난달 정부와 국회에 국제선 이전 반대 건의서를 낸 데 이어 물리적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전은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지역발전과 지역민 편의를 위한 정부의 호환"이라며 "수출 도시, 국제회의도시, 문화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로서는 국제선 존치가 어떤 사업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로스쿨 정원 1,500명 확정

교육부, 2009년 개원 ... 15~16개 대학서 설립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 시 1천500명으로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개원 시 로스쿨 총정원 1천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 2013년에는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개최 직전인 이날 오전 정무부총장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이같은 책정 방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천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단계적·순차적으로 2천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 시 1천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 중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준비 대학 중 3분의 2 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어 대학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영산강 수질개선 국가차원 나서라"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영산강에서 기형 분어가 불잡히는 등 수질이 5급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인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가 국가 차원의 수질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전남발전연구원 등은 지난 15일 발표한 '영산강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영산강 상류지역 일부 구간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급수, 8ppm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대장균군이 호소(湖沼) 수질기준인 5천군수/100ml를 4배 이상 초과한 최대 2만4천200군

수/100ml까지 측정됐다고 밝히고, 영산호 물에 접촉할 경우 장염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영산강 오염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수질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영산강의 수질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 아니라 대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산강의 수질이 3급수로 개선될 때까지 국가 재정 지원, 영산강 하구둑 수문에 개폐식 수문 설치안 조속 마련, 국무총리 산하에 영산강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빛다만평

- 김중두



대선 앞둔 희한한 정치관

남해안관광벨트 재원 없어 축소

사업비 3조6천억 예상

당초 계획보다 13% ↓

남해안의 비국유자원인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이 재원 조달 어려움을 틈 때때로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 40여개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지난 2000년

부터 오는 2009년까지 10년동안 총 3조 432억 원(국고 6천200억, 지방비 8천275억, 민자 3조 5천537억)를 투입해 7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차 중간평가에서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과다한 대상사업 선정, 세부사업 중복 및 추진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비 기준으로 17.8%가 줄어든 총 4조 1천 455억 원(국고 5천188억, 지방비 6천 609억, 민자 2조 9천658억)으로 64개 사업으로 조정돼 실시되고 있다.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올해 4월 '2차 평가 연구' 결과를 통해 사업규모를 58개로 조정하고 사업비 또한 3조 6천75억 원으로 13% 축소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목표연도인 2020년에 대상지역인 40여개 시·군·구를 찾는 전체 지역관광객 수요가 1억 7천만명으로 예측됐으나 1차 중간평가 결과 1억 4천 200만명으로 16.6%의 수요예측 오차가 발생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인쇄광고접수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드리겠습니다.

• 직통: (062)227-9600, 220-0524, 0525
• FAX: 227-9500

구분: 기획·온라인·모집·초빙·영업·모집
시상금·매일·무선·매체·광고·전세·분량

▶광주은행: 081-107-228180 ▶농협: 617-01-108334
*비금융사(주)광주일보

분표개장공고(1차)

정사등에 관한 법제개정 및 법령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영고 및 권고인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이에 신고 및 신고서기 하라.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표에 대해서는 영고 및 권고조각에 따른 불합격의 결정사항을 공고한다.

분표소재지	지번	지목	기수
전남 광양군 향정면 향정리 485-1	천(제수) 485-1	농지	1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리 471-1(가)	농지	농지	1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리 471-2(가)	농지	농지	1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리 471-3(가)	농지	농지	1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리 471-4(가)	농지	농지	1기

1. 분표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시행: 정사등(제수) 485-1

3. 공고기간: 2007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까지

4. 개장방법: 영고 및 권고인제에 의거하여 영고 및 권고조각을 하라

5. 개장신청: 전남 영광군 향정면 향정리 485-1 (전화문의)

6. 인허가: (주)광주일보 (011-611-4414)

7. 기타: 이 공고에 의거하여 신청한 분표에 대한 영고 및 권고조각 후 4일이 경과하면 불합격의 결정사항을 공고한다

2007년 10월 17일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2)972-4585 |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502호)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름 일반 주거지역의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1100평 주·상 복합시설적합

첨단인근 자연, 생산농지

·보통농원부근 산책로 450평 하남공단 9만부근 지방도로점 안락동 1000평 (전일주주거용)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정도시 2008년 개청지 안 380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비야트 호수공원 부근 유휴지 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88 전145 원룸 17층 아파트 1개

·보27000만 원495만 485평43천만

·대70 천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원480만 484평53천만

·대70 평 120 원룸 5부동 3인방 3개 보이22천만 원180만 484평1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

·대88 전145 원룸 17층 아파트 1개

·보27000만 원495만 485평43천만

·대70 천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원480만 484평53천만

·대70 평 120 원룸 5부동 3인방 3개 보이22천만 원180만 484평1천만

2007년 10월 17일

국도변

♣️ **나주·남평역 인근**

♣️ **남향투자 최적지**

♣️ **22,353㎡ (7,000평)**

♣️ **주인직접 (평당3만)**

010-7704-0052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업무내용

■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 법인 M&A (분할합병)

■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 기업잔다 (공인회계사)

■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당

(주)우성건설정보

본사

TEL: (02)587-7400

FAX: (02)587-8855

호남지사

TEL: (062) 226-6300

FAX: (062) 943-2244

급매

태양광 발전소 및 연수원 예정부지

● 전남 보성군 화천면 영천리

● 관리지역 임야 85,950㎡

● 분할가능, 정남향

● 전력380kw 설치됨

● 매매가는 상담후 결정

연락처

062)236-0764
010-6889-7100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30명

▶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가.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60%이하

▶ 6급이상의 공무원, 공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간부, 8년이상의 교직자, 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나. **일반전형**: 필답고사(행정학 및 법학 전공) 및 면접

2. 원서교부 및 접수

가. **특별전형**
2007. 10. 22(월) ~ 11. 8(목)

나. **일반전형**
2007. 10. 22(월) ~ 11. 15(목)

3. 연락처

가. 행정대학원 행정실
☎ (062)530-2206

나.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pacnu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